



# 정교회주보

제2493호

2024.10.06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이라크 모술 시에서 북동쪽으로 20km 떨어진 북부 알파프 산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수도원 중 하나로 알려진 성 마태오 수도원(사진)이 있다. 수도원은 배교자 율리아노스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25명의 수도자와 함께 이곳에 머물던 은둔자 마르 마타이에 의해 363년 설립되었다. 큰 규모의 도서관과 상당한 양의 필사본 보존으로 유명하다.

## 루가 제3주일

성 토마 사도

(제6조 • 조과복음 4)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 사도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고린토 후 4,6~15 (봉)202
  - 복음경 : 루가 7,11~16 ..... 12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미흡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마태오 3,16) 이렇게 해서 성령과 예수님 관계의 두 측면이 드러납니다. 한편으로 성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선물로 내려옵니다. 다른 한편, 성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주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현존케 해주십니다. 성령은 하강, 호의, 선물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사랑받는 아들의 현시(顯示)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요한 16,13~14)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 ‘울지 말라’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오늘 주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던 중 죽은 사람을 메고 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무리가 서로 마주치게 된 것이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동네 사람들이 큰 떼를 지어 상여를 메고 가고 있었다.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아들을 잃고 그를 묻기 위해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가엾은 과부를 보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성모님께서 느끼실 비통함을 생각하시며 그에게 더욱더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주님의 고난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라” 하셨듯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과부에게도 “울지 마라”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는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며 “젊은이야, 일어나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시작하자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 주셨다. 이 일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하느님께서 당신 백

성을 찾아와주셨다!”라고 외치며 온 세상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루카 7,12-17 참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던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해주시는 말씀은 당신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과부의 외아들도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연적인 단계이니 슬퍼할 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기쁜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말씀이다,

죽음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참기 어렵고 큰 고통을 가져오는 아픔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이 죽음은 공포나 두려움이나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에 대한 희망이며 기쁨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는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더욱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하느님을 찬양해야겠다.



#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 3

성 이삭 시리아인(7세기)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 사랑은 기도의 열매

**주** 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것도 검열하려 들지 마십시오.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화나고 분한 감정으로 어느 누구도 통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난한 이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한다면, 기쁜 얼굴과 친절할 말로 그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주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후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행한다면, 당신의 유쾌한 얼굴이 주는 즐거움이 그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루가 6,31) 하지만 우리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충족시킬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 힘이 없을 때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하느님께는 충분합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 속에서 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를 내뿜는 원천이 당신의 기도 앞에 열릴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당신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밖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오 사랑이여! 너를 찾아낸 사람은 복되도다! 너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이로다!

## 좋은 조언을 하는 법

**먼**저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누군가에게 좋은 조언을 하고 싶을 때에는 먼저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할 말을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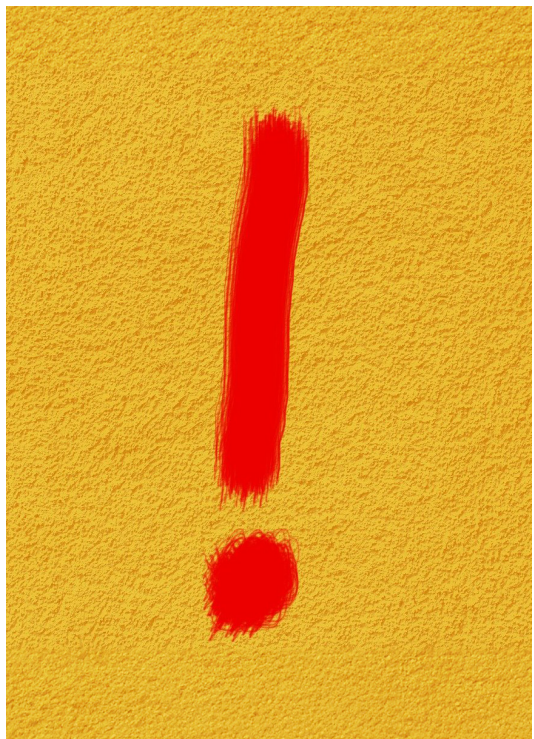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당신이 그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알아챌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는 당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은 상대방의 영혼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채,

무엇인가 유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10월 20일(주일), 성찬예배 후에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셔서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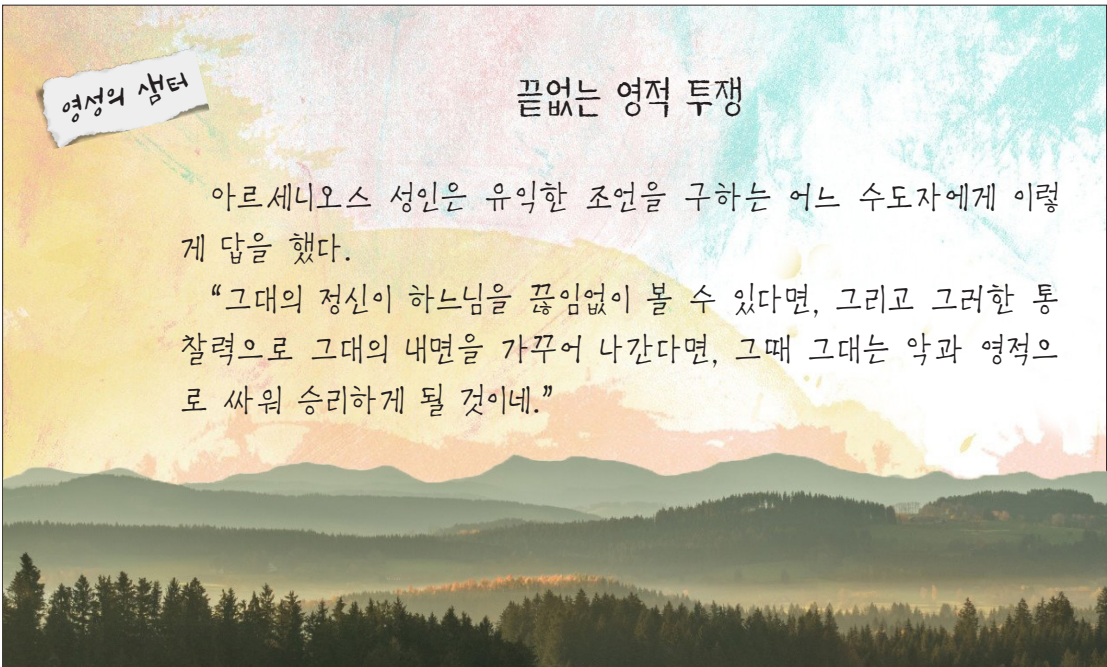
## 알 림

### ■ 니콜라오스 대주교 방한

지난 9월 20일(금) 방한한 니콜라오스 대주교(메소게아 대교구)와 일행은 신부들과 신자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 21일에 춘천 보리스 성당과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23일에 부산 성모 희보 성당, 24일에 인천 성 바울로 성당, 25일에 전주 성모 안식 성당과 성 안나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니콜라오스 대주교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회를 직접 보아서 깊이 감동하였다고 전하며, 각 성당과 수도원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대주교와 일행은 27일,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 ■ 심포지엄을 마치며

지난 9월 27일(금) 천주교 명동 대성당 코스트홀에서, 한국 대교구 및 일본 엑사르히아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CBCK),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NCCK)와 함께 주관한 “인공지능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관점: 봉사자인가 지배자인가”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의 메시지 대독으로 시작하여, 니콜라오스 대주교(메소게아 대교구)의 기조발표, 한창현 모세 신부(천주교), 신익상 목사(NCCK)의 발표, 청중들과의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기획, 준비, 운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 끝없는 영적 투쟁

아르세니오스 성인은 유익한 조언을 구하는 어느 수도자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

“그대의 정신이 하느님을 끊임없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통찰력으로 그대의 내면을 가꾸어 나간다면, 그때 그대는 악과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네.”